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초1 김혜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와 지원은 낮은 실정으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아울러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생존애국지사는 현재 10명으로서 이들의 평균연령이 95세에

이르고, 2013년 보훈명예 수당(월10만원)을 최초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분들의 공적에 비해 예우 및 지원이 낮으므로 확대가 매우 시급합니다.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생존애국지사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정하여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대상을 명문화하고, 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자매까지 확대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예우를 진작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